

	<p>《똥은 참 대단해》 허은미 글 김병호 그림 조은화 꾸밈 웅진닷컴 32쪽 값 8,000원</p>
	<p>《똥 똥 귀한 똥》 기획과글 도토리 김시영 그림 보리 34쪽 값 11,000원</p>
	<p>《똥이 싫어 올라간 하늘》 김진경 글 김정한 그림 문학동네어린이 80쪽 값 7,500원</p>



누가 똥을 더럽다고 했나요? 《강아지똥》의 주인공 '강아지똥' 이 이른 봄 겹겹 잎을 날리는 예쁜 민들레를 키워내는 걸 보세요. 영양분 많은 기름진 똥이 있어야 더 좋은 향기를 뿜어내는 건강한 민들레가 될 수 있습니다.

똥만큼 대접을 못 받는 것도 없습니다. “똥 냄새나. 똥 밟았어. 더러워” 라고 푸대접을 받는 똥은 봄비에 온몸을 흠뻑 적시고 부서진 채 땅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곤 흙과 섞여 민들레 같은 아름다운 생명들을 키워내지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난다고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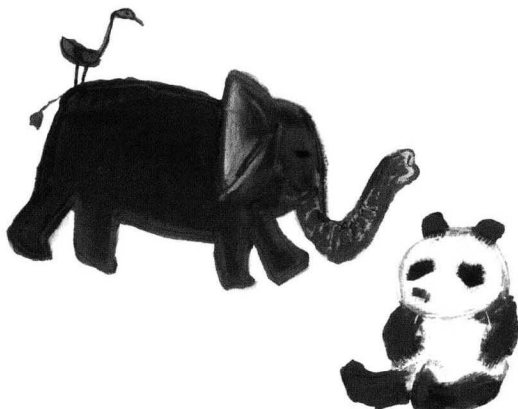
《똥은 참 대단해》를 펼쳐보면 똥이 그것을 배설한 생명체를 설명하는 열쇠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 한 장 한 장에 걸쳐 다양한 생명체들의 다양한 똥이 소개됩니다. 알똥, 진똥, 똥똥, 고드름똥 그리고 그것의 각기 다른 냄새와 색깔... 소개되는 똥의 모양과 색깔, 상태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똥을 배설한 동물과 동물의 건강상태, 습성, 사는 곳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요. 덩치 큰 코끼리는 멜론 크기만한 똥을 여러 차례 싸고, 고기를 주로 먹는 사자는 끈적끈적 기름진 똥을 싸요. 또 간혹 동물의 털과 뼈가 똥에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똥을 먹고 사는 동물도 있습니다. 아기 코알라는 한 달 동안 엄마의 똥을 먹고 자라거든요. 책은 이들의 똥이 돌고 돌아 결국 우리가 먹는 수박을 키우는 토양도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배설물이 섭취물로, 섭취물이 다시 배설물로 된다는 순환논리를 설명합니다.

《똥 똥 귀한 똥》에선 리듬이 느껴지는 글이 유난히 인상적입니다.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들살림 그림책에 '똥'을 주제로 내놓은 것은 똥이 그만큼 우리 살림살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겠지요. 이 책은 《똥은 참 대단해》처럼 똥이 귀한 거름이 되어 새싹을 피우는 데 일조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특히 똥 속에 들어 있는 씨앗을 통해 개똥참외 싹 등이 나와 열매를 맺어줄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놓습니다. 또한 재래식 화장실에 꼭 찬 똥을 퍼나르는 농촌 사람들의 정겨운 모습까지 담아 잊혀져가는 풍속까지 소개합니다. 구불렁 구불렁 줄맛춤 없이 써놓은 텍스트를 읽으면 오선지 위에 그려진 음표를 보는 것 같아 흥이 납니다.

앞서 소개한 두 책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주 독자로 한다면 《똥이 싫어 올라간 하늘》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권하기 좋습니다. 이 책은 똥을 소재로 농경문화의 발달과 인간이 신과 자연과 멀어지게 된 사연 등을 소개합니다. 고욤나무를 중심축으로 하늘과 가까워 하늘 세계와 교류를 한 다휘 총각이 하늘에서 준 범씨와 옥수수씨를 땅에 뿌리게 된다는 이야기. 결국 쌀과 옥수수를 얻게 된 사람들은 세 끼 밥을 먹으면서 배설을 많이 하게 되고 땅은 똥냄새로 가득해집니다. 결국 그 냄새를 싫어하던 하늘 사람들은 땅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지금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이 책은 말미에 쌀은 어떻게 뻗는지, 정월 대보름의 쥐불놀이는 어디서 유래됐는지 등 민속놀이에 얽힌 이야기까지 들려줍니다.

똥은 곧 밥입니다. 똥이 밥이 되고 밥이 똥이 되는 이치. 세 권의 책을 통해 돌고 도는 만물의 순환 이치를 깨달아보세요. **주부**

김창연 기자





입학과 졸업, 성장과 입사, 결혼과 자녀 양육. 우리들 삶에 주어진 여러 마디들입니다. 비단 이런 일들 뿐이겠어요. 허들을 넘듯 힘겹게 마디를 넘을 때마다 예상치 못한 고비들도 생기겠지요. 더욱이 각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에겐 첫사랑에 가슴 설레는 시간보다 불현듯 찾아오는 사건들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낮선 이를 조심하라는 엄마의 당부. 엄마의 걱정처럼 귀여운 꼬마쥐 단비를 괴롭히는 건 집 안에 있는 막둥이 삼촌이에요. 삼촌은 단비를 숨이 막히도록 꼭 껴안고 꼬리를 만져보라고 시키거든요. 삼촌은 그렇게 안 하면 단비와의 비밀을 모두 말하고, 단비가 소중한 여기는 가족앨범도 찢어지게 될 거라고 겁을 주지요. 단비에게 삼촌은 고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에 신고된 1만2,000여 건의 성폭력 사건 중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무려 25퍼센트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 책은 이런 현실을 꼬마쥐 단비가 겪는 사건에 대입시킵니다. 《가족앨범》은 문학적 형상화가 유난히 돋보이는 책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텍스트 삼아 연극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헤어져요.” 아빠의 무심함에 던진 엄마의 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은 밤잠을 설칩니다.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의 진호, 진경 남매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혼율이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대학 강사인 아빠의 무심함에 자신도 사회생활을 해보겠다고 하는 엄마. 엄마 아빠는 말다툼 끝에 별거니 이혼이니 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우연히 엄마의 얘기를 들은 남매는 다른 가정의 아이들처럼 일방적으로 이혼 사실을 통보받다시피하지요. 이 책을 읽는 묘미는 남매가 부모에게 당당히 독립을 선언하는 대목에 있습니다. 자녀를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지 않았던 부모들을 반성케 하는 부분이지요. 실제로 작가는 교직생활을 하던 중 “부모님이 헤어지면 형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한 아이의 일기장을 보고 이 글을 쓰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엄마의 이혼 발언을 떠올리며 이혼가정의 아이 유리를 놀렸던 것을 후회하는 진경이의 고백도 인상적입니다. 부모, 아이 모두 반성할 여지들을 남겨주는 책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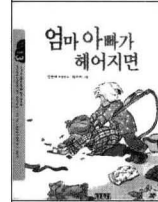
《잠들지 않는 슬픔》은 영화로 치면 ‘디제스터 필름’ 과도 같습니다. 최근 10여 년 간 일어났던 크고 작은 재난사건들을 8편의 동화로 담았거든요. 태풍 매미 사건, 대구 지하철 화재, 삼풍 백화점 붕괴,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등 어린이들도 들으면 알 만한 사건들이 생동감 있게 다시 그려집니다. 사건을 직접 취재하고 글로 옮겼다는 저자들은 동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무척 생생하게 그려내 재난의 고통을 현실감 있게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의 대처방법을 미리 생각해 보자는 권유도 아끼지 않지요. 한 편의 동화 끝에 재난의 원인과 복구상황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 대피요령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배려도 보입니다. **★**

김청연 기자



《가족앨범》

실비아 다이네르트·티네 크리그 글 | 울리케 볼안 그림 | 엄혜숙 옮김 | 사계절 | 48쪽 | 값 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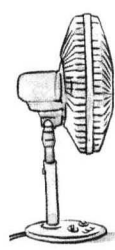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정영애 지음 | 푸른책들 | 128쪽 | 값 7,800원



《잠들지 않는 슬픔》

이노을, 이지현, 정성란 글 | 정경희 그림 | 문공사 | 176쪽 | 값 8,000원



< 아이의 관심과 재능, 책 펼치며 찾아주세요 >

선선한 초가를 바람, 풍요로운 추석 먹거리를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셨지요. 곧 2학기 수행평가가 시작될 테니 이제부터라도 엄마, 아이 모두 부지런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평균 90점은 넘어야 한다고 아이를 잔뜩 긴장시키는 부모님들도 많을 테지요. 특히 예상문제를 풀어보던 아이가 기죽은 듯 “엄마! 다시 풀어봐도 모르겠어요. 난 수학에 재능이 없나봐요”라고 말할 때 아이만큼 엄마도 속이 탈 겁니다.

척척박사마냥 모든 걸 다 잘하면 좋을 테지만 아이들은 만화 속에 등장하는 만능박사가 아닙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1년부터 40년까지의 아이들 얼굴이 제각각이듯 관심분야도 모두 다르고 잘 하는 것도 다릅니다. 축구를 잘 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노래를 잘 부르는 녀석이 있고, 한 번 펼치면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유독 숫자에 강한 아이가 있지요. “다 아는 애인데 뭘...” 하는 부모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녀가 뭐든지 잘하는 ‘만능 어린이’ 가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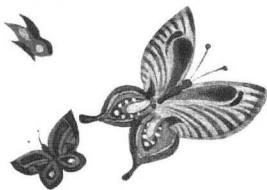
<미래를 꿈꾼 사람들>시리즈를 펼치면 아이들도 아이들이거니와 부모님

들이 더 배울 게 많아집니다. 이 책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가드너 박사의 다중지능이론을 토대로 인간의 지능지수를 여덟 개 분야로 나눈 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위인들의 삶과 업적을 되짚어봅니다. 위인전은 위인전이되, 언어, 논리수학, 시공간, 신체운동, 자기이해, 대인관계, 자연관찰, 음악 등 다양한 분야로 인물들을 나눈 친절한 위인전입니다.

가드너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위인들 중엔 한 가지 지능만 뛰어나고 다른 지능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알려진 아이슈타인 박사는 논리수학 지능에선 천재적인 가능성을 보여줬으나 언어지능은 무척 낮은 인물이었습니다. 국어점수는 30점도 못 받았지만 수학에선 늘 100점을 받는 아이들과 같은 셈이죠. 가드너 박사의 이론

<미래를 꿈꾼 사람들>(전 50권) 김경화 외 글 | 비탈리 루빈 외 그림 | 감수추천 박동규 외 | 한국몬테소리 | 각권 약 34쪽 | 값 350,000원(각권 값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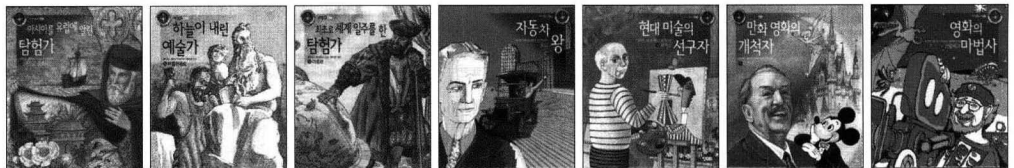
언어지능 1 셰익스피어 2 안테르센 3 톨스토이
4 엘리엇 5 생텍쥐페리 6 윈프리



논리수학지능 7 갈릴레이
8 에디슨 9 벨 10 마리 퀴리
11 아인슈타인 12 허블 13 호킹



시공간지능 14 마르코 폴로
15 미켈란젤로 16 마젤란 17 포드
18 피카소 19 디즈니 20 스피버그



신체운동지능 21 채플린 22 니진스키
23 베이브 루스 24 펠레 25 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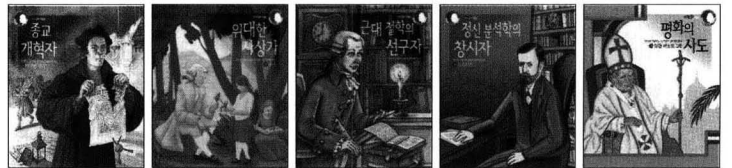
을 토대로 완성된 50권의 책은 지적 소질이 있는 특정 분야를 꾸준히 공부한다면 그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셰익스피어, 안테르센, 톨스토이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을 남긴 작가들은 언어지능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르코 폴로, 미켈란젤로, 피카소 등은 시공간 지능이 뛰어난 천재들이었죠. 훌륭한 인재란 반드시 특정 학문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품성이 남달리 바르고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도 지능 중 하나거든요. 나이팅게일, 몬테소리의 경우는 대인관계면에서 뛰어난 천재로 손꼽힙니다. 이 시리즈는 고색창연한 옛 인물만 다루지 않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스티븐 호킹, 무하마드 알리, 파바로티 등 비교적 최근까지 자신의 분야에서 맹활약했던 인물들의 성공담까지 담아 신선함을 더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이 이야기의 맛을 더해주는 7가지 독특한 형식이 곁들여져 있다는 특징도 있지요. 편지, 시, 신문 인터뷰 형식 등을 도입해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글 읽기의 즐거움을 전하고 있지요.

“하늘나라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와 나를 믿고 계실 어머니를 생

각하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1821년 1월 25일 동화작가 안테르센이 어린 시절 적어놓은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글이 쓰고 싶었지만 글 쓰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 없었던 안테르센은 이렇듯 좌절의 시간을 겪을 때 왕립극장 감독이면서 왕실 고문관인 요나스 쿨린 씨를 만나 재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안테르센의 독백과 같습니다.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이팅게일부터 셰익스피어 그리고 베토벤까지. 위인들의 삶의 궤적을 좇으며 아이에게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찾아볼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책입니다. ✚

김청연 기자

자기이해 지능 26 마르틴루터 27 루소 28 칸트
29 프로이트 30 요한바오로 2세 31 달라이라마



대인관계 지능 32 나이팅게일
33 록펠러 34 간디 35 몬테소리
36 테레사 37 대처 38 마틴 루터 킹



자연관찰 지능 39 다윈 40 멘델 41 파스퇴르
42 파브르 43 시턴 44 플레밍



음악 지능 39 베토벤 40 베르디 41 토스카니니
42 암스트롱 43 마리아 칼라스 44 파바로티

